

산업부, 실물경제 긴급점검 회의 개최

- 산업통상자원부는 1.6일 북한 핵실험과 중국 증시폭락이 우리 무역, 투자,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**1.8일(금) 15:30에 이관섭 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점검 회의를 개최**하였음

- (일시·장소) 1.8일(금) 15:30~16:30, 기술센터 14층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실
- (참석자) 이관섭 산업부 차관, 통상차관보, 무역투자실장, KOTRA 윤효춘 이사, 무역보험공사 조남용 부사장, 무역협회 이재출 전무 등 10명
- (주요내용) 국내기업의 수출 체감도, 외국인투자 및 해외바이어 동향 등

- KOTRA, 무역협회 등 수출·투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북한 핵실험 관련한 **외국인투자거나 해외바이어들의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, 중국의 증시폭락과 관련하여서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 등 실물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**한다고 밝히고,
-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힘

- 한편, 산업부는 1.6일 북 핵실험 사실 확인 직후 수출·투자 상황을 점검 하기 위한 「수출·투자 점검상황반」을 구성하였으며,
- 북한 핵실험 및 중국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른 수출, 외국인투자, 해외 바이어 동향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**실시간으로 점검**하고 있으며, **필요사항 발생시 조치**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박순철 사무관(☎ 044-203-40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「수출·투자 점검상황반」 운영 계획

□ 상황반 구성

-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부내 관련과, KOTRA·무협·무보 등 외부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여 상황반 구성
- * (산업부) 무역투자실장(반장), 비상안전기획관, 무역정책과·통상정책총괄과·무역진흥과·수출입과·무역안보과 과장
(유관기관) KOTRA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 담당 임원

□ 상황반 운영

- KOTRA·무협·무보 등 유관기관 반원은 바이어, 외국인 투자 특이동향 및 기억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산업부에 보고(매일)
- 산업부는 검토후 필요시 사안별로 수출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 해당 기관에 전파 및 문제점 처리
- 비상안전기획관은 종합상황실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들 보안태세 강화 조치

